

## 도, 누리과정 운영비 긴급 투입

연말까지 9개월분  
141억원 한시적 지원

보육교사 수당·교재비  
급식비 등으로 쓰여

전북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를 긴급 지원하면서 보육대란의 불씨는 잠시 수그러들 전망이다.

박철웅 도 복지여성보건의료국장은 11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육대란의 파국을 막기 위해 도의회와 사전협의의 거쳐 연말까지의 9개월분(4~12월) 누리과정 운영비 141억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실무절차가 끝나면 바로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월 3개월분(1~3월)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운영비 47억 원을 지급한 바 있어 모두 148억 원을 담당한 셈이다.

박 국장은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파행에 따른 도민들의 갈등과 보육교사들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 달라"고 촉구했다.

이번에 지원하는 운영비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 1명당 모두 29만원의 누리과정 지원금 가운데, 교육비 22만원을 제외한 7만원에 해당한다.

운영비는 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 수당, 교재비, 급식비, 보조교사 인건



"맛있게 드십시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복지현장 시찰을 하기위해 전주 꽃밭정노인복지관을 방문한 가운데 김광수(국민의당) 의원 등이 배식봉사를 하고 있다.

비 등으로 쓰인다.

정부는 지난 9월 통과한 추경예산에서 전북도교육청에 보충교부금 1,007억원과 목적예비비 232억원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조치했지만 지금까지 전북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이에 도내 어린이집 1,563곳 가운데 누리반 2만1,800여명의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210명이 넘는 보육교사들이

직장을 그만뒀다.

박 국장은 "전북도의 일반 재원으로 비용을 활용했고, 연말까지 3개월이 남아 있으므로 그때 가서 도의 여러 재원 중에서 항목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 이 같은 결정에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환호의 박수를 쳤다.

김옥례 전북어린이집연합회장은 "전북도가 예산을 지원한 것을 환영한다. 하

지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올해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편성 문제도 빠른 시일 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도교육청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떨어뜨린 표정은 감출 수 없다.

정육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전북도가 나서서 나서는 행위는 하지만, 정부 책임인 무상보육과 관련해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삼성 '갤럭시노트7' 생산 판매 중단... 내일부터 연말까지 교환·환불 가능

삼성전자가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하기로 한 '갤럭시노트7' 사태는 교환, 환불 등 제품 수거를 위한 향후 조치가 발표되면서 일단 막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11일 '갤럭시노트7' 생산 및 판매 중단 결정'이라는 제목의 공시를 내고 "갤럭시노트7의 판매 중단에 따라 생산도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갤럭시노트7 소손 발생으로 정밀한 조사와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공급량을 조절했지만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갤럭시노트7 제품의 판매와 교환을 중단하고, 13일부터 제품 교환과 환불을 실시한다. 교환과 환불은 12월3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다른 기종으로의 교환이나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최초 구매처(개통처)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오픈마켓 등에서 무약정 단말기를 구매한 고객은 개통 매장서 통신사 약정 해지 후 구매처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 노트7을 믿고 사랑해 주신 고객과 파트너께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

린다"며 "매장별 준비 상황이 다르니 방문전 전화를 통해 불편을 줄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날 "사고조사 합동회의 결과 새로운 제품의 결함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소비자 안전을 위한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대대적인 리콜 이후 사그라질 것으로 예상됐던 '갤럭시노트7'의 폭발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판매 및 생산 중단이라는 극약처방을 선택했다.

최근 국내외에서 리콜 후 새롭게 공급한 갤럭시노트7 제품에 대한 발화 논란이 이어진 것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이었다.

한편, 갤럭시노트7의 교환 모델로 갤럭시S7엣지를 비롯한 삼성전자 갤럭시 라인업이 선정됐다. 갤럭시S7엣지는 64GB와 32GB 모델 모두 가능하며, 갤럭시S7엣지 불량 부족과 고객 선택취향 등을 감안해 출시 12개월 안팎 또는 출고가 기준 10만원 오차 범위의 모든 단말도 대체 모델로 가능하다. 갤럭시노트7 출고가는 98만1,900원이다. /뉴시스

### 국내 최대규모 민속예술축제, 전주서

## '전통문화와 포용하라'

내일부터 4일간 국립무형유산원서  
'청소년민속예술제'와 함께 개최

연인원 수만명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민속예술축제가 대한민국 문화특별시 전주에서 열린다.

전주시에 따르면 반백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민속 예술을 재현하는 최대 규모의 축제인 '제57회 한국민속예술축제'와 '제23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가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개최된다.

좌담회·시민퍼레이드  
장사익의 토크콘서트 등  
알찬 프로그램 마련

경연 외 먹거리·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북도, 전주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제57회 한국민속예술제 조직위원회와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주관하는 올해 한국민속예술축제

에는 이북5도를 포함한 전국 20개 시·도 대표 1250여명이 각 지역을 대표해 경연을 펼치게 된다. 또, 민속예술에 대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민속예술의 전승·보급을 위한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도 14개 시·도 대표 7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다.

이번 대회의 대상 수상 단체에는 대통령상과 함께 일반부와 청소년부 각각 2,000만원과 1,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게 된다.

축제 조직위원회는 참가인원만 2000여명에 달하는 만큼 참가자 가족과 관객들을 포함하면 축제제를 즐기는 관람객이 연인원 3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축제 기간에는 경연 외에도 전주의 특색 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먹거리마당과 전통공예와 다양한 한지공예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마당, 전주 시민들의 참여로 꾸러질 민속판 프리마켓 등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 된다.

축제 첫날인 오는 13일에는 민속예술의 60년을 조망하는 좌담회가 열리고, 14일에는 축제 참가팀과 전주시민들이 함께하는 야간시민퍼레이드 "온고을 길고 내기"와 소리꾼 장사익의 토크콘서트 "소리고백"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15일에는 영화감독 이준익의 '필름고백' 토크콘서트가 마련돼,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민속예술축제는 그간의 축제를 통해 총 400여종이 넘는 민속예술 종목을 발굴했으며, 이 중 봉산탈춤(1961)과 강강술래(1961), 남사당놀이(1976), 안성남사당풍물놀이(1989) 등 140종이 넘는 종목이 국가 및 지방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또, 강강술래와 남사당놀이, 농악 등 한국민속예술축제를 통해 재조명된 일부 작품들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세계인이 주목하는 무형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했다. /김영재 기자

### ▶ 매일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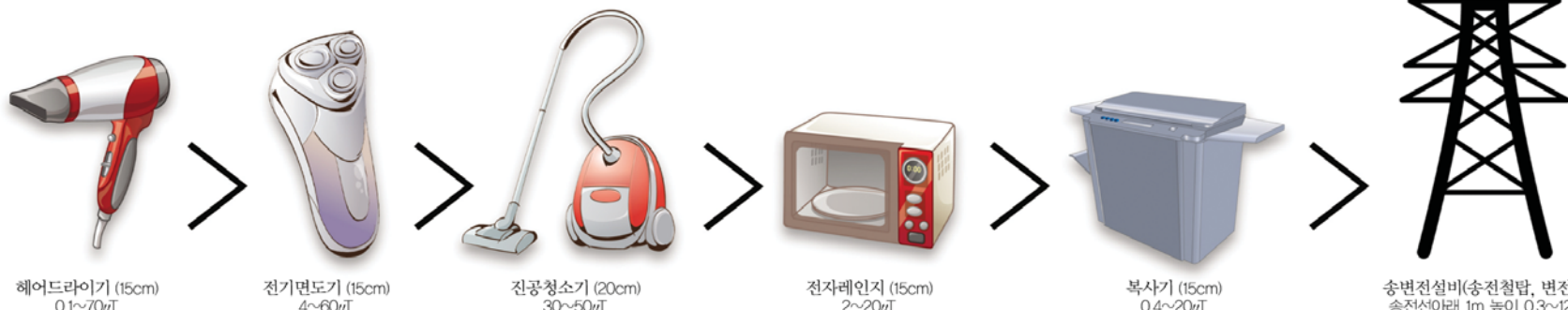
3면 기금운용본부 전주이전설

도내 정치권이 '기금운용본부의 전주이전설' 원점 재검토' 발언에 반발하고 나섰다.

8면·16면 하림, 창립 30돌 맞아

국내 닭고기 산업의 대표기업인 (주)하림이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전주매일의 창간 8주년을 축하합니다



헤어드라이기 (15cm) 0.1~70ㄾT

전기면도기 (15cm) 4~60ㄾT

진공청소기 (20cm) 30~50ㄾT

전자레인지 (15cm) 2~20ㄾT

복사기 (15cm) 0.4~20ㄾT

송전설비(송전철탑, 변전소) 송전선이라 1m 높이 0.3~12ㄾT

※ ( )안은 측정거리를 나타냄

## 안심해도 좋습니다!

송전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계의 세기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기기에 비해 적은 양입니다. 송전설비에 의한 전자계 노출,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참고사항 세계보건기구(WHO) 및 국내(전기설비기술기준) 전자계 기준치 : 83.3마이크로테슬라(μT) 자료출처 : 세계보건기구(WHO)보고서, 미국 국립환경건강연구소(NIEHS)

제2회 한국전력 대학생광고대상 입상작(우송대학교 조은정, 이준호, 진태호)